

◎ The New Community Education and School Library

## 새마을 교육과 학교도서관

최 태 정  
(광주 제일고등학교 사서교사)

### 1. 序論 : 새마을 교육의 기본이념과 의의

새마을 교육은 그 본질에 있어서 넓게 살펴 볼 것 같으면 民族的인 바탕에서 야기되고 있는 사회의 변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社會 변동을 支配하는 정신을 새마을 정신 즉 좀더 具體的으로 말해서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비단 농어촌의 近代化뿐만 아니라 全體社會의 근대화를 지향하는 운동으로 파악 되어야 할 것이다.

새마을 교육은 국민교육현장에 기저한 순수한 韓國의 교육운동이요 四半世紀의 民主教育에 있어서의 教育革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마을 教育의 基本哲學은 어떤 個人의 創作物이거나 어느 外國에서 빌어온 것이 아니다. 즉 새마을 교육은 국민교육현장의 생활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교육현장은 우리 교육혁명의 기점이 되는 것이며 교육혁명의 기점이 되는 국민교육현장 정신은 바로 새마을 교육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일어 설 의지가 없는 者는 支柱를 고여서 세워 보아도 장승이 될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分明히 말해서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文化를 농민의 번영을 향하여 농촌을 근대화하려는 운동인 동시에 조국을 경제의 바탕, 도의의 바탕에서 구하려는 민족의 대운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 운동」은 국민의 소득증대를 향한 경제정책인 同時에 꾸준한 정신운동이 그 밑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정신개혁운동인 것이다. 이는 조국의 落後 現狀을 조속히 벗어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그 진도를 최대한으로 단축시켜 선진국의 대열에 끼어 보자는 힘찬 내 딪음이다.

새마을 교육의 意義가 이렇진데 새마을 교육의 기본이념도 이에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이것은 곧 일선 교육자가 現在 教育의 기본목표로 하는 국민

교육현장의 生活化와도 完全히 一致되고 직결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고찰해 봤을 때 새마을 교육은 급진적인 문화재전주의 교육철학적 입장에서조차 살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교육현장의 구체적인 지표에서 우리들의 전통적인 애국, 공익, 경애, 신의, 학문이라는 우리 文化의 본질적인 면과 능률, 실질, 기술 등의 진보주의적인 요소가 통합되어 있는 것이 현장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를 감안 할 때 「조상의 얼」을 되 살리는 길은 전통문화의 기초 위에 서양의 과학정신을 지양시켜 미래의 민족과 인류의 목표를 달성시키는 새로운 文化를 재건 내지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이것은 곧 국민교육현장의 결구인 「새 역사를 창조하자」에서 「새 文化를 창조하자」에 意味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민교육현장 理念의 일관된 정신 바로 이 점이 새마을 교육의 기본이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우리의 문화에는 가치와 과학 사상과 실험을 통합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러한 민족적 소명을 담은 것이 국민교육현장이며 이 현장을 깨우는 기쁨이 바로 민족정신인 것이다.

일찌기 문교부의 한 당국자는

「국민교육현장 이념의 당면 실천강령은 自助, 근면 協同이라는 새마을 정신의 3대강령이다. 이 가운데에서 자조와 근면은 個人德目이요 協同은 社會德目이다 이 두 要素가 어떻게 結合되는가는 현장정신에 기초치워지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 새마을 교육의 핵심이 있다」라고 하면서 『현장 정신의 실천 운동으로써 새마을 교육운동의 철학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힘 모아 일어나야 할 것이며 그러는 가운데 새마을 정신은 발전 될 것이다』라고 피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받아드려 질 것이다.

새마을 교육은 生活 그 自體에 관심을 두는 것 보다 그것을 반성하면서 정신에 중점을 두는 교육운동이다. 기술이나 과학이나 생산에 못지 않게 민족혼과 운

리와 도덕과 思想이 중요한 통일 의 길이고 민족 번영 의 길이라는 반성과 자각운동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새마을 교육은 생산교육이다. 생산교육은 실험과 과학 중심의 생활중심교육이지만 생활중심교육은 본질적인 면이 강조된 어디까지나 「학문적 생활중심」이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새마을 교육은 「민족교육 개혁운동」이요 「통일을 위한 민족 주체성 확립운동」이요 「민족부흥운동」이며 「국적있는 교육 찾아내기 운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 교육은 「자주독립의 자질을 갖춘 국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후진사회가 그렇지만 인구가 많고 生活수준이 낮은 후진사회일수록 국가발전의 가장 큰 장애는 물질 자원의 제한 못지 않게 민주시민으로서의 力量을 갖춘 有能한 人的 資源의 不足이다. 우선 충실한 국민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만드는 데 力點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새마을 교육은 국가안보의 입장에서 교육하고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새마을 교육이요 이것이 곧 애국하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 2. 새마을 교육과 학교도서관

새마을 운동은 인간이 하는 것이고 인간은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요사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은 약진 조국의 건설을 위해 모든 국민의 정신적 협력과 총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우리 교육도 새마을 운동을 받아들여 안으로 주체성 높은 한국 교육이 되게 노력하고, 국적있는 교육, 나아가 교육의 사회화 기능을 극대화하여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一大 方向을 바꿀 중대한 時點에 와 있는 것이다.

앞서 본인은 「새마을 운동」은 국민 모두가 추진하는 조국근대화를 뒷 받침하는 경제개발과 정신개발을 동시에 구현하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 원동력이야말로 국민들의 자조 자립 협동정신의 발휘에서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마을 운동은 『生動하는 민족의 「비전」』이어야 하며 『남은 이끼를 씻는 의지의 표시』이어야 하고 『새 농촌 새 도시 새 문화를 향하는 의욕』이고 『조국의 새로운 변영』을 위한 정신운동이어야 한다. 이 정신운동을 완벽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신혁명이 우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새마을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조, 자립, 협동정신과 근대화에 목표를 두고 소득을 증대하여 건강하고 편리한 안식처로 우리의 주변을 꾸며 보자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붕개량이나, 도로 확장등의 외면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앞서서 할일이 주민들의 정신적 근대화가 선행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주민들 스스로가 좀더 잘 살아 보겠다고 스스로 마음먹고 나서야지 官에서 제 아무리 근대화 된 제도나 생산방법을 퍼 나간다 하여도 주인이 이를 받아드려 소화시킬 능력이 없을 때 근대화를 위한 모든 노력은 그 결실을 맺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 농촌에 대한 정부당국의 一方的인 지원은 밀빠진 독에 물을 붓는 格으로 의타심만 키워 왔다고 봐도 그리 큰 틀림은 없으리라 이 밀빠진 독 밑을 메꾸는 작업 즉 주민의 「바람직한 목적의식 이해력 사고방식 등 일정한 수준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협력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자각이 그 바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의 발전과 창조 의 총화인 知的文化的 보급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주민 개개인의 슬기는 이것이 사회발전에 끊임없이 利用되고 保存되고 전달되는 가운데 사회는 개량되어 근대화란 새로운 형태의 변모를 지속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대화란 官의 힘이나 공문서만 가지고도 안되며 그렇다고 농부의 삽과 쟁이만 있어도 안된다 특히 농촌근대화의 열쇠는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와 이 意思를 실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슬기로운 능력의 배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 의사의 결정과 슬기로운 능력이란 주민이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과 교양이다. 유능한 새마을 지도자를 발굴하여 교육을 시키는 일이나 이론과 실체를 연결지어 주는 產學協同體制를 확립하는 理由도 따지고 보면 그 뜻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얼마전 전남도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독서좌담회 제목 수출 증대와 독서운동에 참석한 일이 있다 거기에서 한 농업학교 학생이 말하기를 「現在 행정 당국에서 급년을 대풍년이라고 얘기하는 데 그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급년은 결코 대풍년이 아니다. 내가 농촌을 돌아 봤을 때 그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얘기 할 수 있었다라고 했말다. 그 학생의 말의 요지는 현재 농민들의 영농방법이 계승적 방법에 의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70% 이상으로 예년의 수확량에 접근하거나 상회하는 것은 하늘의 도움에 따라 결정지워진다는 것이다. 만약에 현재의 농민들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만 집어 넣어준다면 현재의 수확량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때 우리들의 땅에서 생산되는 식량으로 충분히 주식의 자급자족을 가능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외화 소비를 막는 길이니 수출증대의 母體的 역할을 하는 것이요 범국민적으로 행해지는 새마을 운동이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였다. 물론 나는 농사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 학생의 말이 절대

적으로 옳다고 수긍은 할 수 있었다. 그것은 “풍부한 경험+전문적지식=소특종대”라는 공식은 부인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농간기를 이용한 농가부업에 있어서도 양어 양토 양봉 양계 약초재배 고등소재 등등 그 어느것 하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몇년 전 『클로테라』가 동물(가축)의 사료로 절대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농업계 뿐만 아니라 학계를 떠들썩하게 하였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엉뚱하였다. 선진국(일본)의 연구결과만 곁으로 받아드려 가지고 마치 우리가 연구개발한 것 처럼 했다가 뿌리없는 나무처럼 실패하고 만 사실은 “오랜 경험과 전문적지식”이 잘 조화 될 때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무사안일에 젖어 극히 제한된 知的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전형적인 “페턴”으로 표현되는 한국, 농촌의 체제는 근대화된 사고방식이 변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슴속에 의욕과 자각과 지적 사고 즉 창조성을 개발하고, 발휘 할 수 있는 능력을 집어 넣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대 국가건설은 인간활동의 바람직한 자세와 두뇌개발에 따라 그 성패가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인간활동의 바람직한 자세와 두뇌개발, 이것은 곧 정신혁명으로 귀결 지을 수 있다.

앞에서 말 한바대로 새마을 교육운동의 핵심이 정신혁명 즉 지적수준의 향상이라는 점을 발견한 이상 이 지적수준의 향상에 절대적인 要件이 되는 도서관의 설치란 어느 사업보다도 앞서야 되겠고 또 도서관이 새마을 교육에 무엇을 어떻게 뒷받침 할 것인가에 대해 진로를 분명히 설정하여야 하게 되었다.

새마을 교육 자체가 새마을 운동의 본이요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 精神革命이라고 본다면 이 정신혁명에 절대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다. 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도서관”이다

이와 같이 도서관이 정신혁명에 절대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 각 시군 단위 또는 마을 단위로 도서관의 설치란 급히 서두르지 않으면 않될 중대한 사업인 것이다.

인력자원의 개발을 위한 주민의 교육과 훈련은 사회발전이란 문제와 직결되고 있으며 각종 도서관의 봉사는 오늘 날 전체국민이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Center가 되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간에 이를 필요로하는 주민들에게 언제나 부단히 공급해 주어야 할 사명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날 일대 사회개혁을 위한 새마을 운동의 선봉에 서야 할 도서관이 일반 주민들로부터 소의 될 뿐만 아니라 외면 당하고 있음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이 주민생활과 유리되어 있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한국 공공도서관의 이와 같은 형태는 제도적 재정적 사회구조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봉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신자세의 확립과 행동철학으로 전개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의 절호의 이 기회를 도서관인 전원은 일치 단결하여 도서관 발전의 전환점으로 받아 드려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다 적극적인 대민봉사의 체제로 바꾸어 주민들의 생활속에 뿌리 박아야 한다.

독서훈련(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주민들과 유리된 체 도서관은 학생들만이 利用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 범社會的인 착각을 하루 속히 불식시키고 도서관이 주민에 파고 들어 보존 보관의 형태에서 이용 중심의 형태로 그 이용방법을 전환시키는 길만이 도서관을 인식시키고 더 나아가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봉사는 곧 새마을 운동에 기여하여야 할 도서관의 자세인 것이다. 이 경우 특히 유의할 것은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각종 자료 가운데에서 새마을 운동에 필요한 書目을 作成하여 비치함과 同時에 지역별로 각 새마을 운동 지도자들에게 고루 분배하여 줌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 적극적인 안내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도서관의 역할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즉 생동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은 현대인 누구나가 다 공명하고 公知하는 사실이다. 현대에 있어서 학교나 대학도서관의 위치가 많은 학생들이 아주 빈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거나 또 공공도서관의 위치도 지역사회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야만이 가장 적당한 위치라고 말하여짐은 이미 도서관의 역할이 잠에서 깨어나 움직이며 생동하는 즉 모든 시설 및 자료가 館內에서 館外로 이들의 이용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증거인 것이다. 특히나 새마을 교육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행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움직이는 도서관이 아니고서는 새마을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 3. 학교도서관은 지역사회에 개방되어야 한다

도서관 봉사의 중요 목적이 지역사회의 주민들에게 될 수 있는 한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

공하여 그들 이용자로 하여금 정확하게 비판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自立的인 정신을 育成하고 국가가 하여야 할 일에 국민으로서 스스로 참여하겠끔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重要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시군에 공공도서관을 빨리 설치하고 각 면, 리 단위로 분관을 설치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現在의 우리 실정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과 人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당장 공공도서관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만 한단말인가? 누구에게 물어 봐도 방치해 둘 수는 없다고 답할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에 만여개의 마을문고가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벽지 주민을 위한 소도서관 운동으로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추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을문고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각 촌락마다 갖추고 있는 마을문고 실태를 보면 마을문고를 갖고 있어도 관리자나 이용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 衆論이다. 마을의 長이나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이 마을 문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일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나 또는 농사를 위한 필요에 의해 도서를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또 마을문고가 비치되어 있다고 해도 도서의 선정이 조잡하고 농민의 지식(必要)과는 무관한 내용의 책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마을문고 설치의 본래의 목적과는 크게 위배되는 실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마을문고란 농민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곳인 동시에 기술 보급의 Center 역할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말 한바와 같이 현재의 마을 문고는 분명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 기능을 발휘하기엔 극히 난점이 많다. 그러므로 현재상태로서의 마을문고 운영보다는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을 육성발전 시켜서 공공도서관이 하지 못하고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환언하자면 마을문고가 지역 단위의 각 학교를 기점으로하여 움직인다면 어느면으로 봐서도 지금의 몇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로 학교도서관은 마을 문고보다 차원이 높은 도서관이 있고, 둘째로 良書를 선정하고 案内하는 사서교사가 있으며, 셋째로 각종 정보의 교환 및 여러 가지 도서의 전달 수단을 아동들에게 둘 수 있으므로 人力의 절약 정보의 정확 예산의 一元化等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까닭이다. 물론 각급 학교 도서관(실) 담당교사나 사서교사의 업무량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훨씬 많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를 감안하여 각급 학교에 문고 담당자 1인만 더 배치하여 합리적이고 협조적인 운영을 한

다면 그 기능을 보다 높은 목표에 이르게까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요, 각 부락 단위마다 국민학교일 경우 5,6학년 중에서 중고등학교일 경우 성실하고 착실한 학생중에서 문고의 책임자를 선정하여 부락단위별로 선의의 경쟁을 시키므로써 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날의 도서관이 전개하여야 할 봉사형태는 지역마다 지니고 있는 성격이나 주민의 생활구조 경제적, 합리성, 주민의 의사 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봉사의 형태와 방향을 결정하여야지 근대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외국의 도서관봉사형태를 직수입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여건으로서는 이동문고, 직장문고, 마을문고, 단체대출, 가정순회대출 등의 적극적인 봉사와 전개등의 바람직한 봉사방법이 있다.

스스로 찾아 오지 않음 주민을 한없이 앉아 기다린다고 해서 도서관이 발전 될 길은 아무것도 없다. 각 가정을 찾아 상품을 선전하고 파는 월부판매원 처럼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각 가정에나 직장에 배달해 주는 능동적인 봉사의 전개는 오늘의 도서관이 書庫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고정관념을 벗겨 줄 것이며, 도서관에 바람직한 「民主市民 養成」이라는 국가적인 命題와 「주민생활사이의 가교」로써 등장할 때 비로소 단순한 학생들의 공부방 구실도 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나 현재 우리의 실정으로 봐서 이동문고의 합리적인 운영은 가장 효과적일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이와 같이 학교도서관이 봉사하는 능동적인 움직이는 도서관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고려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순회문고의 활동을 고려치 않을 수 없다.

물론 순회문고의 실시에는 여러 가지의 기초자료조사와 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먼저 기 설치된 지역사회의 마을문고 설치상황을 조사하여 이 마을문고를 하나의 봉사기구로 정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각 최말단의 행정구역 단위를 기점으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문고용 자료의 선택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료의 선택은 먼저 대중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의 意見을 먼저 귀담아 듣고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다음으로 도서관의 의견을 加味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세번째로 문고의 책임자를 잘 생각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그것은 문고의 자료가 곧 도서관의 재산이기 때문에 문고의 역할이 끝난 뒤에는 도서관 자료가 반드시 도서관으로 되돌아와야 하는 데 이처럼 원상태로 받

(15면에 繼續)

5. 結 語

農民들의 知識과 自覺, 올바른 意識과 마음의 姿勢가 새마을 運動의 求心點을 向해 集結되므로서 協同과 創造와 生産이라고 하는 앞찬 열매가 맺어진다.

農民에게 創造와 生産의 底力을 培養해 주는 唯一한 方法, 持續的인 方法이 社會教育이다. 그 社會教育의 中樞의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郡單位 公外圖書館이며, 그것은 오로지 館外奉仕網인 마을文庫를 通해서 一貫性있게 能率的으로 展開하므로서 만이 可能하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에 對한 關心과 意圖의 努力이 진지하게 試圖된 바가 없고, 停滯狀態를 打開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實情下에 있다. UNESCO에서는 「책은 萬人의 것」이라는 <캣치프레이즈>를 全世界에 내건바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책은 學生·知識人·一部特殊層의 것으로만 되어 있고 人口 50%를 차지하고 있는 農漁民들의 것이 못 되고 있다.

低開發의 狀態를 永久化시켜 왔던 바람직 하지 않는 與件을 改善하지 못한 重要한 分野가 바로 農村의 讀書不在現像과 關連된 郡單位 公共圖書館 開發事業이라고 明白히 지적할 수 있다. 先進開發國에서는 國民 한 사람이 年間 平均 2,000페이지에서 3,000페이지 이상을 읽고 있는데 比해서 우리 國民讀書量이 年間 40페이지~60페이지 不過하다는 부끄럽고 낮은 統計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은 몇가지 分明한 要因이 있다. 그것은

(19面에서 繼續)

환되기 위해서는 문고 대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책임자를 결정하여 책임지도록 함이 좋고 문고의 책임자는 마을문고의 책임도 겸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네번째로 문고의 순회기간에 대해서도 지역의 사정을 십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2주내지 3주간이 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너무 길면 무관심속에서 분실을 할 가능성이 있고 너무 짧으면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강요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4. 독서지도는 새마을 교육의 증추이다

새마을 운동의 핵심이 정신운동이라고 함은 이미 앞에서 수삼차 얘기했다 정신운동이란 국민자체의 직접 간접경험을 통한 인격형성과 더불어 사고와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즉 독서를 생활화하여 삶의 가치관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새마을 전설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독서습관(훈련)을 형성시켜야한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새로운 기풍조성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지역사회의 문화시설로서 독서에 알맞는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없는 상태다. 겨우 있다면 학교도서관 정도가 아닐까? 완전하지는 못할 지라도 어느 정도 조건이 구비된 각급

첫째가 一般國民의 讀書意識이 貧困

둘째가 公共圖書館에 對한 必要性和 認識貧困

셋째가 公共圖書館의 數와 施設, 資料, 人力, 機動力(移動自動車文庫)의 貧困

등을 包含한 公共圖書館 開發事業의 全般的인 貧困性 때문이라는 決定的인 要因을 否認할 수 없다.

知識은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資本이요, 費用이요, 主要한 資源이다. 따라서 讀書은 生産이요 投資요, 모든 開發의 주춧돌이기에 새마을 運動의 重要한 틀니 바뀌임을 再確認해야 한다.

한 나라가 特別 開發途上國家가 持續的으로 隆盛發展 하려면 크게 나누어 세가지의 絕對要素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 첫째가 一般國民들의 높고 고른 知識水準

둘째가 國民의 團結

셋째가 훌륭한 領導者가 있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境遇, 이 세가지 絕對要素 가운데 現在 缺如되어 있는 것이 一般國民의 고르지 못한 知識水準이라고 잘라 말 할수 있다. 特別 農漁民의 경우가 아주 뒤떨어지고 있다. 모두가 關心이 없고 모두가 손대기 싫어하는 分野, 그러나 누구인가가 國家百年大計를 위해 一大 果斷을 내려 時急히 서둘지 않으면 안될 分野가 農村地方의 公共圖書館 開發이라고 하겠으며, 國家發展과 새마을 運動에 있어서 公共圖書館이 차지하는 重要性을 다시금 再強調하고 이에 對한 果敢한 投資와 바람직한 開發對策이 時急히 이루어 져야 만 한다.

학교도서관에서 새마을 운동에 관계되는 제반 자료를 중심으로 “새마을 이동문고”를 실시하고 나아가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훈련을 실시하는 일은 새마을 교육을 알뜰히 하는 것이며 도서관 봉사방법으로서도 최선의 방법이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 운동의 근거는 정신혁명이라는 대명제를 명심하고 학교도서관이 국민정신 개혁운동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나 실무진은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도서관 뿐만 아니라 각급 도서관에서는 현재의 단일한 봉사방법에서 좀더 차원 높은 산(生) 봉사방법에 대해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이 끊임없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의 주어진 시간 주어진 제목의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參 考 文 獻

地域社會開發과 農村近代化	朱 權 著
韓國의 社會教育	황 중 건 외
교육과 教育學	鄭 範 模
山村地域社會開發에 관한 研究	朱 權
教育評論 Vol. 162, 164, 165, 169, 170.	
도서관 Vol. 27	
새교육 1969년 1월호~72년3월호	